

구렁비 살리기 비폭력 직접행동 안내

평화지킴이(비폭력직접행동팀) 참가자를 위한
현장 직접행동 참여 안내서 Ver. 1



2012. 3.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로 모여줍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5년에 걸친 강정 주민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3월 7일(수) 오전 11시 22분 구럼비 바위의 첫 발파는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매일 발파가 진행되고 있고요. 해군은 아마도 강정투쟁의 상징이었던 구럼비를 발파함으로써 반대운동의 투쟁의지를 꺾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주류 언론에서는 이미 구럼비 발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기상여건이 허락할 경우 앞으로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동안 매일 4~5차례씩 발파작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특히 총선 뒤 여소야대 국회 등장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총선 전 말뚝을 박아놓으려 해군이 꾀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으로 긴 싸움의 호흡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해군의 이러한 꾀수에 맞춰 4월 총선까지 1차적으로 잘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정마을로 모여줍서!

구럼비 평화지킴이 활동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실제로 발파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의 방법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강정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강정의 증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증언자들이 되어서 강정에서 해군과 정부가 벌인 짓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알려내야 합니다.

현재 구럼비 발파에 쓰이는 화약은 당초 예상했던 육로가 아니라 선박을 통해 해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정에서는 실제로 발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화약이 적재되어 있는 탄약고에서 탄약을 실은 운송수단이 나오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구럼비 바위에 접근해서 실제로 폭파를 못하도록 막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경찰의 방해로 쉽

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강정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발과 첫 날 이 기사를 타전했지만 충분치 않았거나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가능한 많은 언론을 타고 한국의 방방곳곳, 전 세계 곳곳에 전해져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투쟁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별로 그룹별로 보다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행동을 기획해 봅시다.

강정투쟁은 어느 누구의 투쟁도 아닌, 우리 모두의 투쟁입니다. 가능하면 개인별, 그룹별로 **최소 3일(단기 참여) 혹은 최소 15일(장기 참여)**의 일정으로 강정을 방문해 주십시오. 방문하시기 전에는 가능하면 이 안내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고 필요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안내서는 투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2012. 3. 12. (월)



1. 평화지킴이 현장 직접행동의 조직 및 구조

해군기지 반대 투쟁은 ①<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반대 **강정마을 대책위원회**>, ②<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③<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의 3주체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민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육지 전체, 이런 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밖에 ④<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대책위**>, ⑤<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등이 뒤이어 출범했는데 이들 5개 대책기구가 '**구럼비 살리기 전국시민행동**'이라는 연석회의를 구성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정마을 현장에는 다음과 같은 실무팀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④ **평화지킴이(비폭력 직접행동팀)** : 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폭력 직접행동의 중심에는 평화지킴이가 있습니다. 육상과 해상에서 구럼비 파괴를 감시하고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제주도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주민과 함께 평화지킴이 활동의 주축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장기체류 활동: 육상 혹은 해상팀의 일원으로 일정한 기간, 비폭력 직접행동을 수행합니다.(최소 15일 이상, 일반적으로 1달 이상)

② 단기방문 활동: 육상 혹은 해상팀의 안내로 그 날 그 날의 직접행동에 동참합니다.(2박 3일 내외)

※ 신청자들에게는 소정의 설명과 교육이 제공됩니다.

④ **법률지원팀** : <민수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중심이 되어 투쟁 과정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조언 및 상담, 접견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강정마을에 오시면 야광색 조끼에 '인권침해감시단'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옷을 입은 변호사님들의 활약을 보실 수가 있어요.

④ **미디어팀** : 강정마을에는 특별한 미디어팀이 따로 가동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사진, 동영상들이 이 팀에 의해 제작, 배포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강정의 투쟁을 외면할 때 이 팀들 덕분에 진실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언론 접촉과 관련한 논의는 이 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④ **현상상황실** : 강정마을 현장에서는 <강정마을 대책위원회>와 <범도민대책위>가 중심이 되어 각 투쟁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일들을 해요. 마을대책위와 범도민대책위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집회를 주관하고 제주도, 경찰, 해군 등과 협의하는 등 지금까지 현장투쟁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④ **국제팀** :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는 강정마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쟁점입니다. 강정마을 현장에는 많은 해외 활동가들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국제화하고 세계의 평화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국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팀 역시 자발적으로 모인 평화활동가들에 의해 꾸려졌습니다. 한편 서울에 있는 전국대책회의와 소속단체들 역시 현장 국제팀과 더불어 국제연대활동을 벌입니다.

2. 평화지킴이 비폭력 평화행동 내용

평화지킴이 활동의 기본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구럼비 발파를 비롯한 해군의 공사강행을 저지하는 저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약을 실은 운송수단이 구럼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사장 입구에서 비폭력행동을 전개하는 것 혹은 구럼비 바위와 공사장에 진입하여 발파작업을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방법으로 머무는 것 등입니다.

Occupy 구럼비

구럼비 바위를 점거하는 투쟁이 현재로서는 구럼비 발파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폭약을 터트릴 수 없으니까요 구럼비를 방문하고자하는 소그룹을 자발적으로 구성하거나, 평화지킴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급적 많은 이들이 구럼비를 방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해군과 경찰은 구럼비 바위를 방문하는 것을 막고 있고 심지어 구럼비를 방문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있지만 구럼비를 방문하는 것은 합법적 행위입니다. 최근 서귀포 시장은 구럼비 바위는 공유 수면으로서 "일반인의 방문을 금지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펜스와 철조망으로 완전히 봉쇄된 구럼비는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망치나 절단기를 이용해 펜스에 입구를 내거



[지도® 지점] 구럼비 해안가

나 철조망을 끊고 구럼비로 가는 방법은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나, 재물손괴 등의 죄목(?)이 추가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상팀이 운영하는 카약을 타고 구럼비 바위로 진입하거나, 썰물에 강정포구 등에서 도보로 진입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속한 그룹에서 Occupy 구럼비를 고려하고 있다면 구럼비에 들어가는 방법에 관해서는 반드시 비폭력 직접행동 실무그룹(해상팀/육상팀 혹은 현장상황실)과 의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는 위에 언급한 강정마을의 여러 팀들과 접촉해서 필요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소그룹을 지어서, 만약 본인이 속한 소그룹의 인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폭력 직접행동팀과 접촉해서 비슷한 행동을 계획 중인 다른 팀과의 협력 하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의 계획을 현장 실무팀 혹은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꼭 알려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자신들의 행동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반드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무언개(현수막이나 깃발, 형광띠 등 눈에 띄는 색으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파로 인해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옷을 따뜻하게 입고(해상으로 진입할 경우는 갈아입을 옷 준비) 방한을 위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그룹의 계획에 따라) 최소한 반나절 이상의 장기적인 점거를 생각한다면(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맨 몸으로 들어간다면 쉽게 체포가 될 것이지만 그룹 내 친구들 몸을 서로서로 묶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경찰이 쉽게 사람들을 하나하나 끌어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합니다) 비상식량, 따뜻한 물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도㉠지점] 공사장 후문

공사장 정문(후문) 봉쇄

현재 육로를 통해 폭약이 운반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공사장 정문과 후문 봉쇄는 여전히 이 투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거의 매일 공사장 정문과 후문 앞에서는 집회, 미사, 153배 등의 다양한 행사와 비폭력 평화행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각자의 그룹별로 다양하고 창의적 행동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트위테리안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강정마을에 내려가 특히 그 곳의 전의경과 해경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도록 호소하는 캠페인을 해보고 싶다는 연락을 해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관심사, 그룹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투쟁의 방법들을 고민해 봅시다.

3. 교통편·숙박 등 강정마을 관련 정보들

교통편

가장 좋은 방법은 제주공항 5번 출구에서 600번 리무진버스로 '강정농협' 앞에서 내리는 방법입니다 (1시간 4500원). 그런데 요즘 상황이 상황이어서 교통통제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고, 이 경우 중문-컨벤션센터-(대포-약천사-강정-풍림리조트)를 생략하고 바로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이마트 맞은편에서 택시로 풍림리조트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7분, 4000원).

숙박

현재 공식적인 숙소는 남자숙소, 여자숙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자숙소는 최대 9명, 여자숙소는 최대 7명 정도 숙박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밖에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숙소 상황에 따라 추가 수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참고 : 10명 이상의 단체 방문자들의 경우에는 마을회에서 숙소제공이 어렵습니다. 다만 방문 접수 담당자와 미리 며칠 전에 상의하시고 예약하신다면 조율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마을에서 제공하는 모든 숙박시설에 인원이 찼을 경우, 강정마을에 있는 다음의 민박집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막살이 민박	010-6789-5142	서귀포시 강정동 5494
서부 민박	(064)739-1851	서귀포시 강정동 2851
바다와 섬 민박	(064)739-5866	서귀포시 강정동 2881-6
바다, 하늘 그리고 나 팬션	(064)739-5054	서귀포시 강정동 4695-4
강정 씨빌리지	(064)739-2173	서귀포시 강정동 4641-1
솔대왓 팬션	(064)739-7225	서귀포시 강정동 4641-3
슈가비치 팬션	(064)739-6922	서귀포시 강정동 4641-4
조은리조트	(064)739-0640	서귀포시 강정동 2468
풍림리조트	(064)739-9001	서귀포시 강정동 2677

세면장, 화장실 이용안내

마을회관 4층지도 ㉞지점 온수샤워 가능, 의례회관지도 ㉞지점 주방의 온수 가능(다만 주방에서 씻을 수 없고, 세면실로 가져가야 함), 그밖에 풍림콘도에 대중목욕탕이 있습니다.(7000원)

식사

중덕삼거리 식당[지도㉞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이곳은 밤낮 생계를 뒤로하고 뛰어다니는 마을주민들과 상주하는 활동가들을 위해 마련된 전용 식사공간(부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방문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해드릴 수 없지만 미리 방문 접수하시고 소정의 식사 후원(한끼 3000원 이상)을 해주신다면 가능합니다. 삼거리 식당의 모든 부식과 재료, 생필품들은 100% 모두 강정마을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후원과 기부식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식품과 물건들을 최대한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 현장의 상황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물

* 숙소에서 덮을 개인침낭, 개인 세면도구, 수건, 썬크림 비상 상황 대비해서 기록용 카메라 혹은 캠코더, 또는 핸드폰 카메라, 녹음기, 개인노트북(숙소 무선인터넷 가능), 바람막이 점퍼(3월 현재 제주의 기온은 영상이지만 바람이 심해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장갑, 마스크, 텀블러, 핫팩 등등

* 최근 해상 활동이 중요해져서 바다수영장비(구명조끼, 물안경, 잠수복) 등을 갖고 계신 분이나 수영가 능 능력자들이 필요합니다.

4.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도구들

* 현수막 : 가지고 다니기 쉽게, 색색깔로 예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A2 사이즈(420 x 594)에 메시지를 써넣으면 가시적으로 언론에 알리기 가장 좋습니다.

* 몸 자보 : A4 사이즈의 종이 혹은 형겅에 메시지를 써서 옷에 고정시키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 깃발 : 손에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 꽂을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미디어와의 협력

* 모든 직접행동은 반드시 언론에 노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별, 개인별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있다면 날짜시간방법 등에 대해서 강정 미디어팀과 소통한 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접행동을 하는 그룹 내에서도 실행한 액션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록은 짧고 명료할수록 좋고, 사진과 영상을 반드시 첨부해주세요.

* 직접행동과 관련해서 언론와의 인터뷰시, 참가한 그룹 내에서 그 그룹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 액션에 참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핵심만 전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막상 카메라가 다가오면 울렁증에 우물쭈물하게 되고, 그러면 가차 없이 편집될 뿐만 아니라 밤에 자다가 부끄러움에 하이킥 하는 수가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1분 정도로 행동의 이유, 목적 등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직접행동 시 겪게 될 법적 문제들

* 법적 지원 : 만일 연행이 되면, 제주도범대책위원회나 전국대책위원회에서 체포나 조사 과정에서의 인 권문제, 조사받을 때의 대처 등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특히, 3월 13일부터 한 달간 민변의 변호사님이 강정마을에 상주할 예정입니다. 법률자문 요청 시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

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주세요.

☎ **민변: 02-522-7284**

체포에 주로 적용되는 법 조항

* **경범죄** : 펜스나 철조망을 훼손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장이나 구럼비로 들어가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체포할 수 없고 다만 2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체포의 명문을 삼기 위해 집시법 위반, 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연행합니다.

* **집시법 위반**

i) 주간의 미신고집회의 경우 단순참가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참가자를 현행범으로 연행하려는 경찰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렇게 현행범체포가 어렵다는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반교통방해나 해산명령불응죄를 적용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야간에 집회하는 경우, 야간미신고집회가 될 수 있는데, 주간의 미신고집회와 달리 일반참가자들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특히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주거불안정 등 다른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이 역시 항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손괴죄** : 공사장이나 구럼비에 들어가기 위해서 펜스나 철조망을 훼손할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되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손괴하게 되면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공무집행방해** : 위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무원들의 업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공무 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폭행이라는 것은 '때리려고 시늉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광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업무방해** : 삼성대립 등 민간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유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 경찰들에게 욕하는 것은 요즘 모욕죄로 많이 의율되어 체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사례 : 발과 첫 날 연행되었던 쇠시슬녀들의 경우**

저희는 3월 7일 수요일 오전 8시 경에 마을에 폭약이 반입되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주민들 차벽에 쇠시슬로 몸을 묶었고, 일반교통방해죄로 연행되었습니다. 연행과정에서는 여경들이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집행하는 듯했고, 실제로 저를 연행했던 여경은 굉장히 미안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복불복입니다. 남자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폭력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전해집니다. 이런 경우, 연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술, 관련 증거를 남겨 놓는 게 중요합니다) 서귀포경찰서로 이송되어서는 약 1시간 가량 담당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질문 내용은 행동 이유와 목적, 그리고 주도한 자(!)의 이름을 묻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행위의 목적과 정당성을 이야기했고, 도로교통을 방해한 것은 제가 아니라 마을을 차단한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도한 자에 대한 질문은 질문 내용이 너무 구시대적이기도 하고, 표적 수사의 우려가 있어서 진술거부 하였고, 다른 친구들과 모두가 협의해서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저희는 조서에는 지문날인 대신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점심때가 되어서 서귀포경찰서에서 밥을 먹고, 유치장이 있는 제주시 동부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연행 후부터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니 모든 방법 동원해서 본인의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에게 요청해서 핸드폰 충전도 했습니다) 유치장에서는 여경들에게 몸수색을 받고(휴대폰, 지갑, 악세서리, 후드티셔츠의 끈 등은 맡겨야합니다) 입감되었고, 연행된 지 11시간 만에 풀려나왔습니다. (법정 구금시간은 최대 48시간이며, 이 시간 내에서 유동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경찰서와 유치장의 분위기는 우리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경찰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7. 각종 연락처 모음

- *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02-723-4250 peace@pspd.org (서울 캠페인이나 전체 일정 등이 궁금하실 때)
-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 02-711-7292 spark946@hanmail.net (강정의 전체 상황에 관한 문의)

- * **천주교인권위원회** : 02-777-0641 chrc@chol.com (강정의 전체 상황 및 천주교 차원의 캠페인 일정에 관한 문의)
- * **생명평화결사** : 061-351-1950 lifeppeace@hanmail.net (강정의 전체 상황 및 강정평화학교 관련 문의)
- * **전쟁없는세상** : 02-6401-0514 peace@withoutwar.org (비폭력 직접행동이나 관련 워크샵에 관한 문의)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02-522-7284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실 때)
- * **강정마을 현장상황실** : 070-8222-1020 1Gangjeong@gmail.com (숙소, 식사, 미디어 및 준비하신 행동에 관한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조력을 받고 싶으실 때)
- * **평화지킴이들과의 소통** : 현재 강정에 있는 지킴이들은 긴급상황을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매일 촛불집회 끝나고 진행되는 지킴이회의에서 채팅방 초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페이스북 강정마을 사람들** : <https://www.facebook.com/groups/gangjeong/> 및 **Twitter 강정당** #강정 , #gangjung 달아서 트윗 RT (현재 강정의 투쟁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곳. 필요한 물품이나 투쟁 관련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곳)

8. 자주 하는 질문들

Q : 현재 강정의 분위기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위험하지는 않은가요?

A : 강정의 투쟁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경찰들의 원칙 없는 대응이 강정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럼비 발파를 막는 직접행동 자체는 어느 정도 위험요소가 있지만, 이러한 직접행동 말고도 강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춤도 출 수 있습니다. 체포의 부담에서 벗어나 직접행동을 하는 사람들 옆에서 지원하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꼭 강정으로 오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 등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구럼비를 점거하거나 해군기지 건설부지의 출입구를 봉쇄하는 행동만이 평화를 실천하는 길은 아닙니다.

Q : 현재 강정마을로 들어갈 수는 있나요? 경찰의 경비가 삼엄하지는 않습니까?

A: 공항에서 마을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가끔 마을을 우회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경찰이 검문검색을 하는 식으로 해서 마을진입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강정마을로 들어오는 방법은 이 안내서의 3. 교통편·숙박 등 강정마을 관련 정보들을 확인해 주세요.

Q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먼저 강정사거리에 있는 강정평화관지도 ©지점에 방문해주세요. 강정평화관(사람이 많을 때는 공지 후 의례회관지도 ㉔지점에서)에서 **매일 저녁 8시에 촛불집회**가 있고, 이후에는 **구럼비 지킴이 회의**가 있으니, 여기에 결합해서 인사 나누시고 이후 계획을 공유하면 됩니다.

Q 과연 우리가 구럼비를 지킬 수 있을까요?

A: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인 운동의 계획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럼비를 지키는 것은 제주 해군기지의 전면 백지화로 가는 중요한 고비입니다. 지금 강정마을의 주민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평화활동가들은 지난 5년간의 투쟁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육지의 많은 사람들이, 제주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오랜 싸움에 지친 강정의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자리를 돌아가면서 채워주어야 합니다. 발파가 시작되고 당분간은 많은 언론들의 주목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주목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강정'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까. 우리는 강정 주민들과 그곳의 평화지킴이들의 끝없는 희생에만 의지해서도 안 되고, 며칠 지속된 반짝 관심에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장기적인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해야 합니다. 또한 만에 하나 구럼비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한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최소 4월 총선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Q 4월 총선 전까지 구럼비는 어떻게 될까요?

A: 현재 제주 우근민 도지사는 구럼비 발파가 시작된 3월 7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을 해군에 예고하고, 오는 3월 20일 청문 절차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일 해군이 청문에 불응하거나 소명이 부족할 경우 즉각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제주도에서 청문절차 이후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내리면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혹은 해당 처분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지사는 이 같은 주무 부처 장관의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구럼비 발파는 당분간 중단되게 되므로, 일단 대응하는 우리는 단기적인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Q 지금도 계속 발파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구럼비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불행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럼비 발파가 완료되어도 앞으로 해군기지를 짓기까지는 더 많은 공사와 정치적 협상이 남아있습니다. 구럼비 발파로 우리의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며, 해군기지 공사를 완료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계획을 백지화할 시점은 우리가 투쟁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여러 번에 걸쳐 찾아올 것입니다. 그 기회를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구럼비가 파괴되면 당장 주변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겠지만, 만약 이후 우리가 성공적으로 투쟁해서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면 자연은 그 놀라운 복원력으로 다시 삶을 이어나갈 것이고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입니다.

Q: 혹시 연행된다면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좋을까요? 지문날인에 대해서는요?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48시간을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문날인은 거부하거나 서명으로 대체가능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 체포근거와 시간 등은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강정 투쟁에서 강조하는 비폭력이 무엇입니까? 그 원칙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A: 우리는 비폭력이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백지화를 쟁취하는 데 효과적인 투쟁의 방법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가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도 덜하며, 이 문제에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반대자 모두의 마음을 열어 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9. 이 밖에 정보 및 할 수 있는 일들

- **현장상황실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112 강정마을회관 2층 (우: 697-829)

- **강정 투쟁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곳**

[다음카페 구럼비아 사랑해] <http://cafe.daum.net/peacekj>

[강정마을] <http://www.gangjeong.com/>

[페이스북 No Naval Base on Jeju!] <https://www.facebook.com/groups/nonavalbase/> (영문 자료)

[페이스북 Save Jeju Island 생명평화 강정마을] <https://www.facebook.com/SaveJeju> (영문 자료)

☺ **항의 전화/의견**

- 서귀포 경찰서 064-760-0112/5211(서장실) <http://j.mp/zA6yGB>
- 도지사실 (064)710-2092 <http://j.mp/qe7lxB>
- 기지사업단 (064)797-4391,4394, 4396, 4398 <http://j.mp/iRGyQ3>

Ⓢ 1인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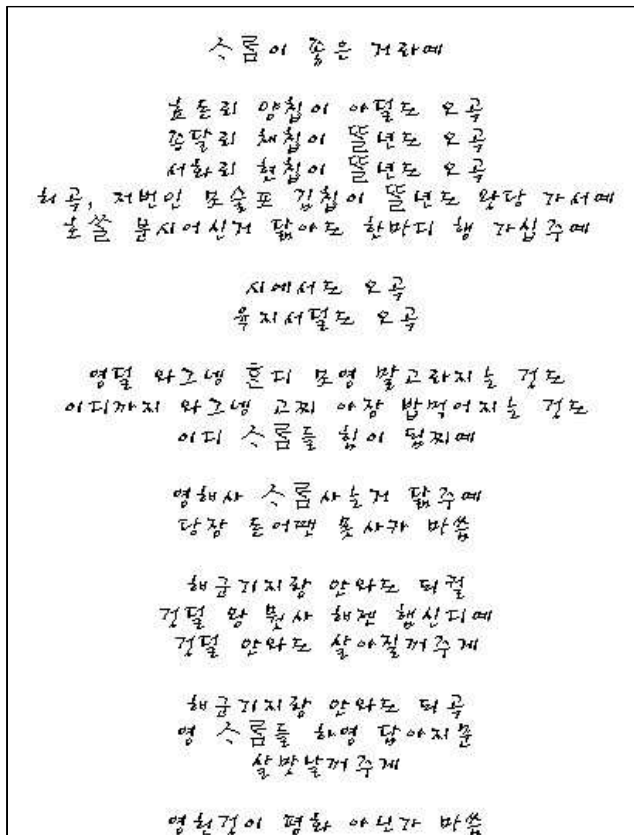
- 있는 곳에서 1인 시위와 촛불집회 조직 참여 (서울: <http://j.mp/zfW5fC>)
- * "D.K.K.K" "죽이지마 강정, 죽이지마 구름비" 인증샷 <http://j.mp/wVtZib>

Ⓢ 응원글/현수막 보내기

- 오마이뉴스 '강정' 관련 기사에 응원댓글 달기 <http://j.mp/wSafqr>
- 강정을 응원하는 1000개의 현수막을 답시다! <http://j.mp/xAALQ3>
- "D.K.K.K" 인증샷 '강정닷컴' 코너에 사진올리기 <http://j.mp/wLbk8>

Ⓢ 각종 모임 기획

- 각 모임에서 '제주 해군기지' 관련 토론회, 기도회, 콘서트를 개최해 주세요.
- 잼다큐 강정 공동체 상영: <http://blog.naver.com/jamdocu>
- 강정관련 모임에 필요한 홍보자료 문의: 미디어팀(<http://j.mp/xEjL4p>)



Ⓢ 물품 기부

- 강정에 항상 필요한 물품들
<http://j.mp/AmwNhh>

Ⓢ 후원 안내

- 벌금만 3억인 강정마을을 도우시려면 농협 351-0294-9968-13 (강정마을회)
- 강정 평화지킴이들을 응원하시려면 농협 351-0419-9507-53 (유가알: 강정마을 사람들)

<MEMO>

9. 강정마을 지도와 중요위치

